

반세기 불교학계 이끈 '견인차'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창립 50년

1962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 연마를 위해 문을 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50주년을 맞았다.

불교문화연구원의 개원은 불교교육과 연구가 전문적 강령교육에서 벗어나 현대화가 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내 최초 인문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은 1983년 2월 연구역량을 강화해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했다. 2007년 3월에는 대학 교학연구기관으로 승격해 불교학술원 발족의 견인차 역할도 담당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을 거쳐간 불교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불교사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조영기 박사를 초대원장으로 김동화, 장관

규, 홍정식, 김영태 등 불교학계의 거장들이 불교연구원을 거쳐갔다. 또 현재 동국대를 비롯해 여러 불교 관련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들이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7년간 9대 원장을 맡았던 이재창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정적인 면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했다. 연구진도 동국대 교수들로부터 구성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현재는 연세대, 이화여대와 같은 다른 대학에도 문호를 열고 HK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는 눈부시다. 연구업적 보급으로는 1963년 10월 15일 교계 최초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를 발간했다. <불교학보> 1집에는 김방석, 권상로 등 12명의 당시 대표학

자들이 불교연구 업적물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불교학보>는 현재 통권 62집까지 발간됐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인용색인지수 종교학 분야 1위에 올라있다.

한국불교에 관한 문헌을 정리한 <한국불교전사술문헌총록>을 1976년 간행했으며 이에 근거해 원효, 의상 등 한국불교 논서와 논문을 정리한

거쳐 간 학계 중진도 다수
한국불교전서·사상총서 간행
인접학문 등 협동연구는 과제

<한국불교전서>를 펴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한국불교전서는 그동안 대부분이 중국경전인 대장경에 한국문헌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14권에 이어 향후 15권, 16권 등을 지속적으로 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교문화연구원은 1973년

부터 일본 중국 등 외국 불교연구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불교 체계화를 주제로 연구부분의 인문한국(HK)사업, 집성부분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사업, 교육 불교한문 아카데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학원을 설치해 다른 사회분야와 불교의 융합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12대 연구원장을 맡았던 서울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전통에만 안주하던 한국불교를 깰고 내 변화를 이끈 촉매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나 불교생태학 등 인류의 당면문제에 대한 참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학으로서의 불교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9면

세계적 수행자 아잔 브람, 내년 방한

첫 한국 방문... 1월 10~16일 동국대서 명상힐링캠프

불기2557년 계사년 신년을 세계적 명상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 명상 수행자인 아잔 브라흐마 스님(사진, 이하 아잔 브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때문이다.

아잔 브라흐마 세계명상힐링캠프 준비위원회(위원장 각산)은 "내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동국대 국제선센터와 대강당에서 '아잔 브람 스님 초청 세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선정 체험과 실제 깨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고대 불교 명상을 과학적 명상 체계로 보완한 아잔 브람 스님의 수행법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영국 캠프리지대 물리학도 출신인 아잔 브람 스님은 태국의 아잔 차 스님을 만나 불법을 배웠으며, 곧 그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다.

이후 호주 불교의 산실이자 수행승들의 최대 커뮤니티가 된 보디나야나 수행센터를 건립해 서구인들에 정통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출간돼 선풍적인 관심을 모은 명상 에세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집중 수행 방식으로 진행
'선정 체험과 깨침' 주제
조계사 등서 대중 법회도

첫 방한과 함께 이뤄지는 '세계명상힐링캠프'인 만큼 집중도가 있는 수행으로 이뤄진다.

수행반은 수행 경력 3년 이상의 선정반과 초심자반인 일반반으로 그룹이 편성되며, 그룹, 개인별로 정통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출간돼 선풍적인 관심을 모은 명상 에세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선정반은 별도의 개인방에서 좌선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일반반은 명상실에서 좌선 1시간 30분, 행

선 1시간으로 수행을 진행한다. 수행 교재는 아람 브람 스님의 수행 요약본인 <멈춤의 여행>이며, 흡연, 음주, 귀금속 착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집중 수행 캠프와 함께 대중 강연과 법회도 매일 이뤄진다. 방한 첫 날인 1월 9일에는 서울 강남구 구름사에서 오전 10시에 대중 강연이 진행되며, △1월 10일 동국대 불교대학 강당(오후 7시) △1월 11일 불광사(오전 10시) △1월 12일 봉은사(오전 10시) △1월 13일 불교 TV 무상사(오전 10시) △1월 14일 조계사(오전 10시) △1월 15일 도선사(오전 10시)에서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직접 친견할 수 수행법을 배운 방한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조계종 참불선원장)은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신심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행법이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명상의 대다수는 그 뿌리가 없다"며 "아잔 브람 스님이 전하는 수행법은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하는 선정과 지혜 수행인 '사마타-위빠사나'라고 하는 정혜쌍수의 지관법으로 이번 캠프에서는 제대로 된 명상수행을 만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 김장 나눔 체험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들이 특별한 김장 체험을 가졌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태화산 마곡사(주지 원혜)가 11월 23일~25일 3일 동안 자비의 김장김치·배추나눔 파티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 마곡사 신도회, 지역복지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담긴 자비의 김장 7000포기는 지역복지관과 소외이웃 다문화 가정 등에 나눠진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마곡사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의회 만장일치로... 2013년 예산 177억원 확정

천태종 제 16대 총무원장에 도정(道正·사진) 스님이 임명됐다. 천태종은 11월 29일 오전 9시 총본산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린 천태종 제92차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도정 스님 총무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인사

말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종단의 중흥 진작에 나서겠다"면서 "총회와 감사원 등 3원이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 광수사 주지로 있는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968년 입산

△1973년 상월원각 대조사님을 은사로 득도 △2005년 3급(중대사) 법계 품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역임 △8대~14대(현) 총회위원 역임 △단양경찰서 경승실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역임 △울산 정광사·연양 양덕사·대구 대성사·김해 해성사·강릉 삼개사·부천 천화사 주지 등 역임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이사(현) △13대 감사원장, 13대 총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천태종 총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77억 3,270만원으로 확정했다. 천태종 총의회는 제92차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부 산 : 부산지역 일원
- 충 청 : 충청남북도 일원
- 제주도 전지역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917호 INDEX

동안계 결계배어	2
종합	3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 첫 회의 10·27 법난위 정상화 '급물살' 44주년 군승의 날	
시방세계	5
제주명소 메이즈랜드 미로공원	
책세상	22
'올해의 불서' 수상도서 선정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사찰의 상징세계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비교문화·종교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들춰낸다.
- 중앙일보

크고 작은 의문들이 자연스레 풀려난다. 330여 장의 컬러 사진과 다양한 그래픽도 이해를 돕는다.
- 조선일보

지안 스님 저음 | 상하 각 320면, 312면
출판리 | 각 22,000원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긴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HEALING ENERGY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그 생명력의 비밀, 공명

힐링에너지 공명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그 생명력의 비밀

힐링에너지 공명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치유 원리와 그 생명력의 비밀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조화와 공명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치유 원리와 그 적용 사례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저음 | 이인정 옮김
288면 | 15,000원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산사의 생활 문화로 들어가는 34가지 이야기

산사는 깊다

2012 올해의 불서10 선정

지안 스님의 40년 절집 생활에서 걸러낸 산사 생활의 정수

61컷의 사진으로만나는 산사의 고유한 풍경이 마음속 깊은 울림과 휴식을 선사한다!

지안 스님 저음 | 256면
15,000원

우리 산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을까?